

The Builder VIII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류와 흐름을 집중하는 사람

1. 잇사갈 지파

[역대상 12:32]

잇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이백 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men of Issachar,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200 chiefs, with all their relatives under their command;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각 지파의 특성이 있다. 다양한 지파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 몸이 하나이고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여러 특성의 지파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잇사갈 지파가 있다. 잇사갈 지파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때를 잘 분간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알게 하는 사람들이다. 때를 분간한다는 것은 시세를 안다는 것이다. 흐름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잇사갈 지파를 세우셔서 시세를 분별하게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시세를 안다는 것과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

(1) 시세를 아는 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망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다. 시세를 잘못 분별하면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것이 '실수'가 되고, 실수가 견잡을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잇사갈 지파의 기능이 내 안에서도, 그리고 각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나야 할 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잇사갈 지파를 세우셔서 시세를 분별하게 하셨다는 사실과, 그 분별로 인해 행동하게 한 '실재적인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망할 행동을 일부러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옆에서 보면 안타깝다. 그 이유는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세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없어지면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2) 영적원리

흐름을 읽는 자들이 있다 (기류, 물의 흐름 등). 이런 사람을 '고수'라 부른다. 각 영역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다. 흐름을 주목하고 흐름이 가는 방향을 본다. 이런 사람이 전문가이다. 흐름이 왜 중요한가? 흐름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물이 흘러가는 중요한 법칙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결국 바다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 흐름을 알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물의 흐름이 길을 찾게도 해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흐름인 '기류'가 있다. 비행기 기장들이 왜 전문가인가? 그들이 하는 일은 공기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류를 읽고 어떻게 운항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다. 흐름을 안다는 것은 그 흐름 안에 있는 법칙을 통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확신있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2. 성경에서 보여주는 흐름

[시편 1:1-4]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 복 있는 사람이 만드는 흐름 / 악인들이 만드는 흐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만드는 흐름과 악인들의 흐름이 있다고 보여준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들은 그 반대이다. 결국 복 있는 자들은 철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복 있는 자들이 악인들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2절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흐름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복의 흐름을 볼 줄 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 바벨탑처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흐름을 만들지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2) 세속사와 구속사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세속사라 하며, 그 세속사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흐름이 구속사이다. 성경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생명의 흐름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역사이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인 예수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3. 하나님은 흐름을 마음에 만드신다.

이 땅에서 잇사갈처럼 시세를 알고,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류와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학개서 말씀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으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을 보라.

(1)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안에 흐르게 하신다.

[학개서 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So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and the spirit of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되어있다.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안에 만드시는 흐름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영어로 보면 ‘감동시키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선동시키다. 자극시켰다. 감정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흐름의 길을 내신다. 결국 내가 그 흐름에 잇사갈처럼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옮기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일은 말과 생각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마음의 흐름을 감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 그 사람이 바로 빌더이다.

(2)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

내 생각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주시는 흐름에 집중하자. 아무에게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생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의 길 임을 명심하자.